

김호 위원장, 수산 단체장 간담회 개최

- 수산업 미래과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16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수산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수산분야 주요 추진 업무를 설명하고, 수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중장기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산업과 농업 두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10개 수산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고수온, 적조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내수면 양식장 농지 사용 규제 개선, ▲연근해·원양어업 지원 강화, ▲감척사업 수요 확대, ▲동해안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김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특히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미래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문승국 회장은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다양한 수산현안은 앞으로 신설 예정인 ‘수산업분과위원회’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수산식품팀	책임자	팀 장	양호섭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소서진 (02-6260-1232)